



CITIZENSHIP DAY MOBILIZATION 2009

NATIONAL OFFICE 전국사무실

900 S. CRENSHAW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9
T: 323 937 3703 | F: 323 937 3753
WWW.NAKASEC.ORG

D.C. OFFICE D.C. 지부

1536 U STREET NW
WASHINGTON, DC 20009
T: 202 339 9318 | F: 202 387 4893

AFFILIATES 가입단체

chicago, il: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한인교육문화마당집
6146 N LINCOLN AVENUE
CHICAGO, IL 60659
T: 773 588 9158 | F: 773 588 9159
WWW.CHICAGOKRCC.ORG

los angeles, ca:
KOREAN RESOURCE CENTER
민족학교
900 S. CRENSHAW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9
T: 323 937 3718 | F: 323 937 3526
WWW.KRCLA.ORG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체계적 변화를 달성하기 보다는 일부의 번영만을 가져오는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힘들고 불안정한 시기는 변화를 위한 발전을 모색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변화의 신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된 111기 의회 및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 그러하고, 새롭게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올해 시민의 날,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한 데 모여 긍정적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은 9월 17일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중요한 두 가지 이슈인 이민 개혁과 의료 개혁에 관한 입법 및 정책토론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가입단체들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은 '함께 여는 세상: 2009 시민 참여의 날'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날 이민 1세와 2세 등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 목소리로 의회에 사회 변화를 위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2박 3일 동안 워싱턴 디씨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교육, 법안 브리핑 및 의원 방문, 문화공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행사 기간 중 워싱턴 디씨에서 열리는 미교협 설립 15주년 기념 기금마련행사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행사에서 집중 논의될 이민 개혁, 의료 개혁에 관한 안내서를 동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는 **2009년 8월 7일까지** 홍정연(이메일: jhong@nakasec.org, 팩스: 323-937-3753, 우편: 900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교협의 이현주 (전화: 323-937-3703 이메일: hlee@nakasec.org)에게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숙	베키 벨코어	윤대중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



-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 -

1. 미교협과 민족학교,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어떤 단체입니까?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는 전국적인 사회 변화 운동의 건설이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진보의 목소리를 내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들에 의해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의 전국 사무실은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해 있고 워싱턴 디씨에 지부가 있으며, 가입단체로는 로스엔젤레스의 민족학교와 시카고의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전체적인 정치력 신장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고하고 독창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가입단체들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봉사, 문화, 사회참여, 조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단체들의 활동과 함께 미교협은 견고하고 건강한 정책 목표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하며, 전국적 전략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가입단체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참여하고 진행하는 전국 풀뿌리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nakasec.org, www.krcla.org, www.chicagokrcc.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의 날은 무엇입니까?

9월 17일 시민의 날은 미국 헌법 비준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 공휴일입니다. 시민의 날은 의회에서 최근 제정된 공휴일 중의 하나로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의 역사는 1940년 의회가 제정한 "I Am An American Day"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 시민의 날을 기념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워싱턴 디씨에서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미교협과 가입단체-민족학교, 한인교육문화마당집-는 워싱턴 디씨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2009 시민 참여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미국을 건설하도록 미국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 이슈는 이민개혁과 의료개혁입니다.

2박 3일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9월 16일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 시작에 맞추어 이른 저녁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지역 대표단 및 참가자들은 권익옹호 및 언론 활동 교육에 참여하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날의 교육은 행사 전 각 참가자들에게 발송된 교육 자료들에 이어 의원 방문 활동과 메세지 전달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하루 종일)

- 연방 의원들 및 오바마 행정부 실무진 초청 커뮤니티 포럼
- 연방 의원 및 오바마 행정부 실무진 방문
- 백악관 또는 의회 근처에서의 대중 기념행사
- 미교협의 설립 15주년 기념 만찬

2009년 9월 18일 금요일 (점심시간에 해산 예정)

- 평가
- 향후 활동 계획

3. 2009 시민 참여의 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민 참여의 날’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합된 우리 커뮤니티의 힘을 확인하고, 미 전역에서 교육 및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꾸준한 시민참여를 증진해 온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활동의 산물입니다. 금년 내 이민 개혁과 의료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9 월경 법안 관련 토론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는 논의의 핵심 워싱턴 디씨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주요 이슈인 이민개혁과 의료개혁은 각기 다른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논의에서 한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주나 대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고, 특히 미 전역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직업, 종교, 나이를 불문하고 이민자와 비이민자가 한데 모여 경제에서부터 문화적 반향을 일으키고 정치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킬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4. 참가 자격은 무엇입니까?

미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학교, 교회, 절 등에서 활발하게 시민 참여 및 사회 봉사 활동을 펼쳐온 분들이 많이 참가하시길 기대합니다.

5. 참가비는 얼마입니까?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항공료 및 시내 교통비, 숙박(Liaison hotel), 식사, 미교협 기금마련행사 티켓(150 불 상당) 등의 참가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일인당 \$250 불로 책정 되었습니다. 소수에 한해 참가비가 지원됩니다. 워싱턴 디씨 인근 지역의 참가자들은 호텔에 숙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체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합니다.

6.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교협 웹사이트(www.nakasec.org)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십시오. 신청서 마감은 2009 년 8 월 7 일입니다.

7. 저는 한인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행사를 후원할 수 있나요?

커뮤니티 단체는, 2009 시민 참여의 날에 참가자를 파견하거나, 이민 개혁, 의료개혁과 이들 이슈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커뮤니티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지역 언론 또는 지역 단체에 행사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8. 자세한 정보는 누구에게 문의하면 됩니까?

미교협의 이 현주(이메일 hlee@nakasec.org, 전화 323-937-3703x 202)에게 문의하거나 미교협 웹사이트(www.nakasec.org)를 참조 바랍니다.

- 참가 신청서 -



D.C. OFFICE D.C. 지부
1536 U STREET NW
WASHINGTON, DC 20009
T: 202 339 9318 | F: 202 387 4893

AFFILIATES 가입단체
chicago, il: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한인교육문화마당집
6146 N LINCOLN AVENUE
CHICAGO, IL 60659
T: 773 588 9158 | F: 773 588 9159
WWW.CHICAGOKRCC.ORG

los angeles, ca:
KOREAN RESOURCE CENTER
민족학교
900 S. CRENSHAW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9
T: 323 937 3718 | F: 323 937 3526
WWW.KRCLA.ORG

시민의 날은 9월 17일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중요한 두 가지 이슈인 이민 개혁, 의료 개혁에 관한 입법 및 정책토론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가입단체들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은 '함께 여는 세상: 2009 시민 참여의 날'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날 이민 1세와 2세 등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 목소리로 의회에 사회 변화를 위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작성하신 참가 신청서는 2009년 8월 7일까지 이현주(이메일: hlee@nakasec.org, 팩스: 323-937-3753, 우편: 900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에게 보내 주십시오.

기본 정보

이름(영어):		이름(우리말):		나이:
단체명(해당되는 경우):		직함: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		이메일:	

비상 연락 정보

이름:	관계:	전화번호:
이름:	관계:	전화번호:

행사 관련 정보

숙소 (필요한 요일에 체크 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화요일 (서부지역 참가자만) <input type="checkbox"/> 수요일 <input type="checkbox"/> 목요일 <input type="checkbox"/> 필요없음	채식주의자이십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우리말 통역이 필요하십니까? (해당 언어를 기입해 주세요) _____ <input type="checkbox"/>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여 행사 기간에 통역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박스에 체크해 주세요.	
그 외 특별 요구 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예, 건강, 이동시 특이사항)	

<p>9/16 수요일(오후) *저녁/참가자 교류의 시간 *교육 장소: 미정</p>
<p>9/17 목요일(하루 종일) *법안 브리핑 *문화공연 *의원 방문 *미교협 기금마련 만찬 장소: 미정</p>
<p>9/18 금요일(오전) *평가 및 정리 장소: 미정</p>



코리안 아메리칸과 포괄적 이민 개혁

1902년 12월 22일, 한인 이민자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고, 현재 코리안 아메리칸 인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태평양계(이하 아태계) 아메리칸 중 5번째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중 76%는 이민자이고, 51%는 1990년 이후에 이민 왔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모든 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민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필요한 이유

합법신분 취득 -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인구는 1백 3십 4만 명이고, 5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입니다. 전체 서류미비자 인구 중 약 10%는 아태계 아메리칸입니다.

가족 재결합 - 가족초청과 취업은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77,000 명의 코리안 아메리칸은 이민 서류 적체로 인해, 가족을 미국에 초청하는데 수십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 - 영어 사용이

불편한 다수를 포함하여 이민 노동자들은 미 노동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 노동력 중 약 1천 8백 8십만 명(14%)은 이민자이고, 이 중 4백 9십만 명(26%)은 아시아 출신 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 가정 중 3분의 1은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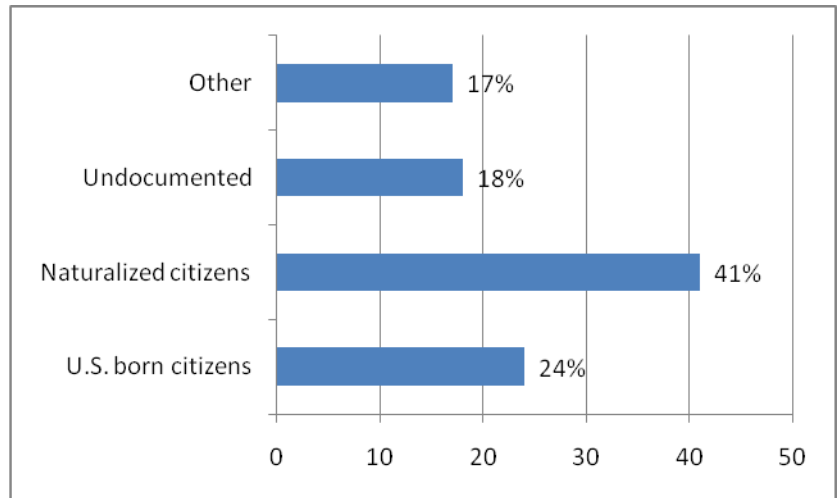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기회 - 매년 65,000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미국 사회에 참여할 기회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서류미비 청소년 수는 정확하게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코리안 아메리칸 인구의 24%가 18세 미만 청소년이고,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 중 60%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이며, 전체 코리안 아메리칸의 18%는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법한 재판절차 준수 - 기본적인 적법 재판절차 준수와 시민 자유권은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입니다. 추방 또는 구금 되는 사람 중 아태계 아메리칸은 약 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구금시설 및 이민시설에서 소수계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나 사회적 격리, 그리고 고유의 문화에 기반한 적절한 치료나 서비스 부족 등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이들의 가족들은 권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거나 언어 문제로 치료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민자 통합 증진 - 코리안 아메리칸 중 469,991(36%)명은 등록된 유권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을 한 코리안 아메리칸의 실제 정치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의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권자는 529,692 명입니다. 이 수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적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해결책: 포괄적 이민개혁을 위한 코리안 아메리칸의 기본원칙

1. 성실히 일하는 서류미비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신분 합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2. 가족 이민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민 서류 적체를 해소하며 강제적이고 무분별한 구금을 중지하고 경범죄로 인한 무자비한 추방을 중지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한다.
3. 이민 신분예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4.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5. 적법한 재판 절차 준수를 포함하여 기본권과 시민 자유권을 보호 및 복원한다.
6. 이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증진시킨다.

우리 커뮤니티의 이야기

서류미비 이민자인 *캐니 윤* 학생은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술 학교 중 한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능있는 청소년 예술가입니다. 캐니는 10 대에 미국으로 이민 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캐니는 열심히 공부하여 4.0 GPA 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캐니는 서류미비자이기 때문에 재정보조나 학생 융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캐니 가족은 캐니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캐니는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에 기여할 기회도 없이, 어떻게 캐니가 전공을 살려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앤드류 장의 삶은 15 세가 되던 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어머니와 스시 주방장인 아버지 슬하에서 태어난 앤드류는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출생하여 임마누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앤드류의 부모님은 1984 년 미국으로 건너와 서류 제출 상의 실수로 인해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2005 년 발렌타인 데이, 톨레도 경찰과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아버지를 미성년자인 앤드류와 함께 남겨둔 채, 어머니를 체포해 갔습니다. 앤드류와 아버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앤드류의 어머니는 4 곳의 구금 시설을 옮겨 다녔고, 그동안 어머니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05 년 8 월 11 일, 앤드류의 부모님은 자진 출국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고, 앤드류는 15 세 나이에 가족 한 명 없는 미국에서 남겨져 법적 보호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와 스시 주방장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나요? 이들을 추방하고 이 나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나요?

함께 할 수 있는 일

1. 이 이슈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의 의원에게 편지, 전화, 방문해 말하십시오.
2. FIRM 의 휴대폰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캠페인 정보를 받으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면 “5878423” (또는 “Justice”) 라고 문자를 작성한 후, 전화번호 “69866”으로 전송하십시오. FIRM 에서 수신 확인 문자를 받으면, 이메일 주소와 우편번호를 다시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한달에 1-2 개의 캠페인 참여 문자를 받게 됩니다.
3. 이민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배우십시오- 이메일 소식지를 신청하시거나 페이스북에 참여해 주십시오.
4. 2009 년 9 월 17 일, 미국 시민의 날 결집에 함께 해 주십시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는 전국적인 사회 변화 운동을 건설이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진보의 목소리를 내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들에 의해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의 전국 사무실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고 워싱턴 디씨에 지부가 있으며, 가입단체로는 로스앤젤레스의 민족 학교와 시카고의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있습니다. 미교협은 인권 및 이민자 권익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진보의 목소리를 내고, 미국 사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교협은 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FIRM), Reform Immigration for America Campaign, Rights Working Group의 일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nakasec.org를 방문하시거나 323.937.3703/ 202.339.9318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왜 우리 커뮤니티가 의료 개혁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보다 건강한 미래 건설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

미 연방 의회와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란 미국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며, 공공의 가치를 나누고, 자원봉사를 하며, 공부하고, 여가를 즐기며,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책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and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이하 미교협)와 가입단체인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Korean Resource Center: KRC),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Korean American Resource and Cultural Center: KRCC)은 올해 국가적 의료 개혁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1) 이민신분에 관계 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보험, 2)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을 위해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3)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가입 할 수 있는 질 높고 저렴한 공공의료 보험 제도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

언어 장벽

영어가 불편하신 한인 연장자는 신장결석과 당뇨로 입원하였습니다. 팔과 엉덩이의 뼈가 부러지면서 염증이 생겨 감염이 되었습니다. 연장자는, 한국어로 “아파”라고 병원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료 통역사를 요구하는 연장자 분을 몇 번이고 무시한 후, 연장자를 돌보던 직원이 연장자의 배우자에게 “아파”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그 말의 뜻이 통증이라고 알려주었으나 그 직원은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연장자께서 “아파”라고 할 때마다 진통제를 주었습니다. 그 분의 통증이 감염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 했을 때는 그 감염이 이미 혈관 및 몸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 연장자는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나를 치료해주는 이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장자께서는 의료 통역사를 제공하지 못한 병원 측의 실수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무보험 한인들의 악화된 건강상태

민족학교에서 무료 검진과 건강 상담 및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 년에 두 번 개최하는 건강의 날과 월별 무료 클리닉에는 많은 의사들과 의대 학생들이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의사들과 의대 학생들은 건강상태가 나쁘고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는 한인들의 숫자가 예상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 놀람과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환자들이 보험이 없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의료 검진을 받지 못하고, 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족학교에서 검진을 받을 때는 이미 그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한인들의 건강 실태

이러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한인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6 퍼센트의 한인들이 정기 검진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한인 무보험자들의 경우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이 48 퍼센트에 달합니다. 오직 26 퍼센트의 한인들만이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가 늦어지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인여성들에게서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이 흔히 발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40 세 이상 한인 여성의 53 퍼센트가 유방암 검사를 받았고 18 세 이상 한인 여성의 50 퍼센트만이 자궁암 검사를 받았습니. 이는 일반

미국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대장암의 경우는 검사를 받는 수치가 더 낮다고 합니다.

한인들에게 의료 위기를 불러오는 주요 요인들

한인들이 예방적 차원의 치료와 질병의 빠른 진단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은 의료 보험의 부재와 의료 불평등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인의 무보험율은 52 퍼센트로 모든 인종 중 가장 높습니다.¹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이민신분, 의료보험료, 그리고 직장 의료 보험 플랜의 부족 등이 그것입니다. 의료 불평등과 관련해서, 한인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 신분: 2000년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의 71 퍼센트가 이민자이며, 5명 중 한 명은 서류미비자입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통로가 없으며, 공공 의료 보험을 제공받지 못해 무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보험료: 가난과 저소득은 높은 사망률 및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고소득은 보다 나은 건강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국가간 비교에서는 소득 불균형이 심할수록 평균수명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차원에서는 사망률 및 비만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 의료 포럼(이하 의료 포럼) 발표에 의하면 백인의 평균 개인소득은 \$25,000인 것에 비해 한인들의 경우 \$18,027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백인 인구 중 8 퍼센트가 연방빈곤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반면 한인들은 14 퍼센트가 연방빈곤수준 이하이며, 연방빈곤수준 200 퍼센트 이하인 인구는 백인이 22 퍼센트, 한인들의 경우는 30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많은 한인의 소득은 낮습니다. 같은 해 실시된 가주 건강 인터뷰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보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부족: 한인들의 자영업 종사 비율은 외국 태생 아시아인 아메리칸 중 가장 높습니다. 이민자 자영업 종사자들과 고용인들은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이 요구되는 업종(식당, 소매, 식료품 업소, 미용업소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소들은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고 고용인들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간접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 보험 제공은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5년 의료 포럼 설문조사에서는 73 퍼센트의 백인들이 직장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직장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불과 48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 문화적 적절성과 문화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한인 커뮤니티의 의료 보험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먼웰스펀드 기관의 한인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1) 10명중 4명의 응답자가 본인의 의사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고, 의사가 본인의 배경과 문화적인 가치성향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 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2) 단지 28 퍼센트의 한인이 본인들의 의료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 4명의 응답자 중 한 명이 침술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언어 권익과 관련된 서비스: 최근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 대다수인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많은 수의 한인 이민자가 영어가 불편한 분들이며 41 퍼센트가 언어적으로 고립된 상황입니다. 2005년 의료 포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이 보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예방주사, 유방암 검사, 정기 검진 같은 주요 예방 의료 서비스 받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합니다.

¹ 코먼웰스 기금 (2001). 2001년 의료 보험 질 조사 설문지.

진정한 의료 개혁은 어떤 혜택을 포함해야 할까요?

A. 합법 이민자와 서류미비자 모두를 포함하여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보험 제도가 필요하며, 누구도 한번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들의 삶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병은 이민 신분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한 사람의 질병은 모든 사람들의 질병으로 전염 될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개인들이 예방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이 의료 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랜드 연구 기관에 따르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무보험일 가능성이 높으며, “무보험자들에 대한 진정한 의료 개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의 경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²

B.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평균수명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소수민족을 위한 의료 보험, 치료, 연구, 자원의 평등을 실현하여 인종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생명과 기금이 낭비되는 의료적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어가 불편한 환자들이 이용가능하고, 재정적으로 지원되며,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기준이 개발되어야 하며, 내용과 시행방법에 대해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수민족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의료 전문가의 만성적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전문 인력을 모집, 교육하고, 지원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환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공공의료 보험체제는 의료 계획에 투자하고, 질병 예방의 전략을 보장하며, 질병을 감독 관리하고, 의료 교육을 늘리고,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들과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통해 공공의료 안전망 프로그램들을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C.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보험 보험 플랜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공공의 건강을 추구하는 저렴한 공공의료 보험 플랜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불평등을 줄이려면,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포괄적인 내용인면서,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저렴한 의료 보험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공공보험, 사보험에 상관없이 적절한 환불과 동기 부여로 보험회사의 참여를 높이며 참여 보험회사 협조를 강화하여, 이민자와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위한 의미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료 개혁 운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미국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이민자와 소수민족 커뮤니티는 의료 개혁 논의와 의료 개혁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태계와 다양한 소수민족 그룹들은 현재 미국에서 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자 유권자는 기록적인 투표 참여를 보여 빠르게 성장하는 영향력 있는 유권자 커뮤니티임을 알렸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교육 기금 기관의 2008 년 출구조사에 따르면, 아태계 투표자들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게다가 2008 년 선거결과를 보면, 반이민 정서를 반영한 정책이 더 이상 당선 전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자들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분열과 배제를 원하지 않으며 포함과 화합의 원칙을 주장하는 새로운 운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² “RAND Study Finds Undocumented Immigrants Are Most Likely to Be Uninsured,” Press Release, November 10, 2005.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료 보험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커뮤니티를 든든히 하고 모든 이들에게 보다 건강한 미래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아래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입안자들, 즉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 www.nakasec.org 로 가시거나 미교협으로 전화를 주셔서 정보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 개혁에서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언어 권익,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 불평등의 문제가 고려 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 공공기금으로 제공되는 보험이나 직장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료 보험 플랜이 새로운 의료 보험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지지하시며, '지금 미국의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캠페인(the Healthcare for America Now: HCAN) 웹사이트 www.healthcareforamericanow.com 로 가서서 10 가지 의료 개혁의 원칙에 서명하십시오.
- 모든사람들을 위한 의료 개혁에 동참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민족학교와 미교협에서 진행하는 의료 개혁 캠페인과 나누시려면, 민족학교의 박양희 (323) 937-3718(한국어) / 미교협의 김캐롤 (323) 937-3703 ext. 200(영어)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www.nakasec.org)는 이민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전국적 운동을 하나로 모아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단체에 의해 1994 년 협의체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의 전국 사무실은 로스앤젤레스 시에 위치하며, 워싱턴 디씨에 지부가 있습니다. 가입단체로는 로스 앤젤레스의 민족학교 (www.krcla.org), 시카고의 한인교육문화 마당집(www.chicagokrcc.org)이 있습니다. 미교협은 인권 및 이민자 권익 옹호 등의 이슈에 대한 전국적 연대를 추구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이 소수민족 미국 시민으로서 건강한 미국 사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